독일언어문학 제57집(2012.9). 239-264

종교개혁이 서적인쇄에 미친 영향*

최 경 은(연세대)

I. 서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1802-1885)는 자신의 소설『파리의 노트르담』(1831)에서 인쇄술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인쇄술의 발명으로] 예술과 동시에 사상도 도처에서 해방된다. 중세 이교의 시조들은 가톨릭에 커다란 상처를 내놓았다. 16세기는 종교적 통일성을 깨뜨린다. 인쇄술 이전이라면 종교개혁은 교회 분리에 불과했을 것인데, 인쇄술은 그것을 혁명으로 만든다. 인쇄물을 제거한다면 이교는 무기력해질 것이다. 그것이 숙명이든 하느님의 섭리든 간에, **구텐베르크는 루터의 선구자다.**[1)]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명으로 인하여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다는 표현으로서 이보다 더 적절한 문구는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인쇄술이 종교개혁 초창기에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추론해보자. 구텐베르크가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1454년『42행 성경』을 인쇄하여 판매하기 시작한 후, 약 60여 년이 지난 뒤인 1517년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점화되었다. 초창기 인쇄의 열기가 식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종교개혁은 인쇄술 발전에 필수적인 콘텐츠를 제공해 주게 되며, 인쇄술이 서구 문명에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1517년 이후 루터의 사상을 널리 알리려는 설교자들의 열의와 반대파에 대한 증오심이 겹쳐서 로마교회와 종교개혁가 간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온갖 쟁점에 관한 개론서가 꽃을 피웠고, 이런저런 풍문과 개종 이야기, 종교적 논쟁이 계속되었다. 루터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교황과 성직자의 타락상, 가톨릭

---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2010-361-A00018).

1) 빅토르 위고,『파리의 노트르담 1』, 정기수 옮김, 민음사 2005, 348쪽.

신자들의 맹목적인 신앙을 비난하였다. 1520년대의 벽보에서 미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실종됐으며, 복음에 대한 설교는 거부당했고, 종소리와 양의 울음소리, 아첨소리, 형식적인 의례와 점등, 분향 등으로 채워져 있다”는 내용의 비난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로마교회도 반격에 나섰다. 그들은 루터의 추종자들이 악령을 받아 불경스럽고 방탕하다고 고발했는데, 특히 사제의 결혼을 비난했다. 예컨대, 예수회의 리슈옴은 “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추잡하기로 작정하고 환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성스러운 곳에 있던 수녀를 불경스럽게 끌어들여 낯 뜨거운 매춘부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2]라고 말하며, 한 때 수녀였던 루터의 아내에 대한 전력을 들추어내며 비난했다. 물론 이런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인쇄물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본 연구는 서적 출판의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거리를 제공해 주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인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종교개혁과 인쇄술’이란 주제에서 어김없이 나오는 문제, 즉 종교개혁이 과연 평민들의 문자 해독력 향상에 기여 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찾아본다. 이를 위해 종교개혁 이후의 인쇄 상황을 구체적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한다. 종교개혁이 자국어 인쇄물 증가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받아들이지 않은 가톨릭 지역의 서적시장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쇄서적, 특히 성경을 구입한 독자를 중심으로 독서 형태와 독서 인구의 변화에 인쇄술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추적해 본다.

II. 인쇄술 발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개혁의 전제조건

1517년 독일의 조그만 도시인 비텐베르크에서 신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1483-1546)가 로마교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95개 조항의 논제를 성(城)교회에 부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부칠 때,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자신의 생각이 그렇

2) 올리비에 크리스텡, 『종교개혁. 루터와 칼뱅. 프로테스탄트의 탄생』, 채계병 옮김, 시공사 1998, 83쪽에서 재인용.

게 빨리 전 유럽으로 확산될지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신기술인 인쇄술로 대량 생산되는 책에 대해 그 당시 유럽에 산재했던 회의적 또는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으며, 이런 생각을 자신의 『좋은 작품을 통한 설교』(1520)[3]와 『탁상담화』(1532)[4]에서 교훈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서적인쇄가 지니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으며, 구텐베르크의 발명을 『탁상담화』에서 "마지막 신의 선물 letztes Gottesgeschenk"[5]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요약하자면 인쇄 서적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서적의 대량 복제에 대한 거부와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던 교양 기독교 유럽인들의 전통적인 입장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의 전도를 위해 '좋은 책'인 성경의 대량 생산을 높이 평가하였다. 후에 루터는 활자를 통한 인쇄가 종교개혁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었다고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그가 인쇄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6]

루이제 홀보른은 「1517년에서 1524년까지 인쇄술과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성장」이라는 논문에서 구텐베르크와 루터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녀는 후스파의 종교개혁이 실패한 것은 자신의 이념을 전달하는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에 있다고 주장한다.[7] 후스와는 달리 루터는 인쇄술의 도움으로 자신의 생각을 빨리 그리고 널리 퍼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빈프리트 슐체도 종교개혁과 인쇄술의 관계를 역설하고 있다. 그는 "종교개혁 운동은 활자를 통한 인쇄가 제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8]라고 단정하고 있다. 베른트 뮐러는 이런 생각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3) Luther, *WA VI*, 203, 10.
4) Luther, *WA Tischreden IV*, 647 (Nr. 5082a).
5) Luther, *WA Tischreden IV*, 436f. (Nr. 4697).
6) 루터가 인쇄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Giesecke, Michael: *Der Buchdruck in der frühen Neuzeit,* Frankfurt am Main 1991, 728쪽에서 많은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7) Holborn, Louise W.: Printing and the Growth of a Protestant Movement in Germany from 1517 to 1524, in: *Church History* 11 (1942), S. 123-137, hier: S. 123.
8) Schulze, Winfried: *Deutsche Geschichte im 16. Jahrhundert,* Frankfurt am Main 1987, S. 121.

“서적인쇄 없이 종교개혁 없다 Ohne Buchdruck keine Reformation.”[9] 미하엘 기제케에 따르면 인쇄 정보 시스템이 “로마의 축복이 없는 대안적 콘셉트 alternative Konzepte ohne römischen Segen”[10] 내지는 로마 행정기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조직을 가능하게 만들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쇄된 전단지를 통해 ‘공공성 Öffentlichkeit’이 처음으로 평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링은 “구텐베르크와 루터. 그들의 작품이 함께 종교개혁을 세계사적인 사건으로 만들었다”[11]고 역설한다. 이런 비슷한 평가들은 종교개혁의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예컨대 하르트무트 보크만은 「황제 지기스문트 개혁의 영향에 대해」라는 논문에서 16세기에 전단지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공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12] 전단지는 16세기나 그 이후에도 홀로 공적인 의견을 만들어 낼 수는 없었고, 구술 정보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낭독자나 서술자를 통한 전단지 내용의 구어적 전달이 전단지 자체보다는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다. 문자로 이루어진 의사소통의 영향력은 증가하는 낭독자와 서술자를 통해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주민에게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존재했으며, 그들이 문자를 이해했다는 사실이 전제된다면, 넓은 계층에 이른 문자 사용자의 형성은 ‘필사시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필사문화의 전성기’[13]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볼 때 종교개혁이 특히 교회 밖 주민의 문자 해독력

---

9) Moeller, Bernd: Stadt und Buch. Bemerkungen zur Struktur der reformatorischen Bewegung in Deutschland, in: *Stadtbürgertum und Adel in der Reformation*, hrsg. v. W. Mommsen, Stuttgart 1979, S. 25-40, hier: S. 30.

10) Giesecke, a.a.O., S. 273.

11) Schilling, Heins: *Aufbruch und Krise.* Deutschland 1517-1646, Berlin 1988, S. 123f.

12) Boockmann, Hartmut: Zu den Wirkungen der “Reform Kaiser Siegmunds”, in: *Studien zum städtischen Bildungswesen des späten Mittelalters und der frühen Neuzeit,* hrsg. v. B. Moeller u.a., Göttingen 1983, S. 112-135.

13) 14세기 중반부터 15세기 중반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명까지의 시기. 최경은, 「구텐베르크 서적인쇄술 발명의 사회문화적 배경」, 실린 곳: 『독어교육』 51집, 499-518쪽 참조.

향상에 생각보다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을 통해 독일인들은 문자를 읽는 민족이 되었다”라든지, 혹은 “종교개혁은 증가하는 책 생산과 급속도로로 팽창하는 책 시장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었다”[14] 등과 같은 표현들은 좀 더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둔다는 주장이다.

홀보른은 서적인쇄와 종교개혁의 관계를 한층 더 세분화하여 평가했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1517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책이 교회 밖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대량 생산물이 되었고, 책이 일종의 ‘예술품’에서 이젠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기능이 바뀌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종교개혁으로 교회는 인쇄업자들의 최고의 고객이 되었다. 새로운 그룹의 고객을 끌어들임으로써 루터는 인쇄술의 주목적에서 중대한 변화를 야기했다. **대량 판매를 위해 질이 양을 위해 희생되어야만 했다. 인쇄술은 자체 만족의 예술에서 아이디어와 소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다.**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인쇄업자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탈바꿈한 것은 루터에 의해 만들어진 3가지 큰 공헌, 즉 새로운 언어, 새로운 형태, 새로운 콘텐츠로 인해 생기게 되었다.
>
> Up to the Reformation the church was the printer's best customer. [...] By the attracting a new group of customers Luther caused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rimary purpose of printing. For mass sale, quality had to be sacrificed to quantity. Printing changed from an art satisfying in itself to a vehicle to convey ideas and material. The transformation in the aim of the printers due to the change in market was caused by three great contributions made by Luther, a new language, a new form [size, broadsides] and a new content.[15]

루터의 사상이 1518년에서 1520년 사이에 퍼진 속도를 생각해보면 종교개혁이 포괄적인 문자 이해에 대한 영향이며 원인이었음은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미 1520년에 루터는 광범위한 공공성의 대중적 지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소위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저서’인 『교회의 바빌론 유수에 대하여 Von der babylonischen Gefangenschaft der Kirche』,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 Von der

14) Schilling, a.a.O., S. 124.
15) Holborn, a.a.O., S. 126.

Freiheit eines Christenmenschen』, 『독일의 기독교 귀족에 대하여 An den christlichen Adel deutscher Nation』 등은 1520년에 출간되었으며, 신약의 독일어 번역인 『9월 성경』은 2년 뒤에 출간되었다. 홀보른은 1517년과 1520년 여름 사이에 처음 출간되어, 16세기 말까지 재판되어 온 루터의 작품 32편을 열거하고 있다. 루터의 개별 작품 중 알려진 작품의 부수만 계산할 경우에도 대략 75만부 이상이다. 루터 저서 판매의 정점은 1523년으로 독일어권에서 무려 350종을 인쇄하였다.[16] 여기에 추가로 대략 100종의 멜란히톤 작품과 대화집을 고려한다면 '교회개혁'이라는 주제로 1520년에서 1525년 사이에 집필된 두 작가의 작품은 오늘날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지배적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진다. (그림 1[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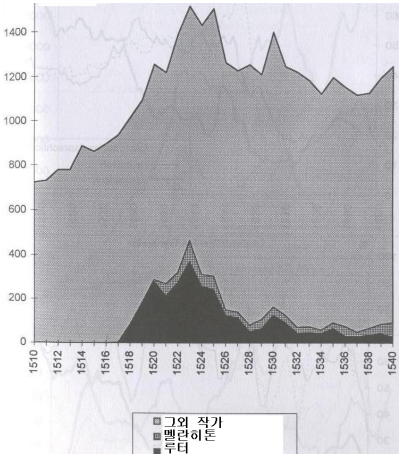

그림 1: 루터와 멜란히톤의 인쇄물과 독일의 전체 인쇄물

이런 특이한 출판 상황에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루터 작품을 구매한 사람들의 문자 이해력이 이미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습득된 상태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이며 동시에 원천으로도 평가되는 문자 이해력과 1517년 이후의 서적 시장을 연결시키는 작업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도 오히려 종교개혁이 단기간에 걸쳐 전통적인 교양 시스템의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연출했다는 사실도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17세기 초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이며 학교 교장인 에노흐 비트만이 궁정연대기에서

16) 크노프는 루터의 작품을 읽는 독자만 1백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Vgl. Knoop, Ulrich: Entwicklung von Literalität und Alphabetisierung in Deutschland. In: H. Steger/H.E. Wiegand(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Berlin/New York 1994, S. 859-872, hier: S. 864.

17) Vgl. Neddermeyer, Uwe: *Vor der Handschrift zum gedruckten Buch.* Wiesbaden 1998, S. 697.

이런 사실을 아주 개괄적이며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 아무도 더 이상 자신의 아이를 학교로 보내거나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루터박사의 작품에서 목사나 학자들이 민중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da fast niemand sehr seine kinder in die Schulen schicken und studirn lassen wollen, weil die leut aus doctor Luthers schriften so viel vernommen, daß die pfaffen und gelehrten das volk so jemmerlich verfuhret hatten.[18]

비트만은 종교개혁이 오래 동안 학교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학교교육의 개혁과 관련해서 루터 자신도 자신의 저서인『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유지해야 하는 데 대해 독일 도시의 모든 시의원들에게 An die Ratherren aller Städte deutsches Landes, daß sie christliche Schulen aufrichten und halten sollen』를 통해 1524년 교양 교육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도시의 학자나 도서관의 사서를 통해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이미 후기 중세 이래 증가하는 도시 학교의 수와 연결될 수 있었던 요구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대량 생산된 1장짜리 전단지의 독자들이 1517년 루터가 95개 조항의 논제를 교회 문에 부친 이래 비로소 '호모 리테라투스 homo litteratus'(문자인)의 세계로 들어섰던 새로운 독자층으로는 결코 간주될 수는 없다. 필사문화 "최후의 황금시대"[19]와 인큐내뷸러 시대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수많은 글쟁이 Viel grammatici"[20]의 존재가 종교개혁으로 야기된 엄청난 양의 인쇄물을 수용할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이었다.

---

18) Widmann, Enoch: Chronik, hrsg. v. Ch. Meyer, in: *Hohenzollerische Forschungen* 2 (1893), S. 1-128; hier: S. 125f.
19) 엘리자베스 L. 아이젠슈타인:『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 혁명』, 전영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10쪽.
20) Neddermeyer, a.a.O., S. 522.

III. 독일어 인쇄물과 라틴어 인쇄물

1517년 이후 독일의 서적 생산은 이전보다 가파르게 상승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종교개혁 후 몇 년 동안 인쇄 대상 문헌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출판양의 비약단계는 단지 몇 년 동안만 지속되었고, 특히 서적 종류만을 고려한다면 이미 1525년에 정점에 다다른다. 이것은 농민전쟁 Bauernkrieg (1523-1526)이 발발했던 불안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 이후에도 서적 생산이 계속 증가하지만, 눈에 띠게 느리게 증가하고 단지 평균 책 크기가 1520년에서 1570년 사이에 작아지고, 페이지 분량이 1530년과 155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다 (표 1[21] 참조).

표 1: 책 크기와 쪽수 (%)

크기	1470–79	1480–89	1490–99	1500–09	1510–19	1520–29	1530–39	1540–49	1550–59	1560–69	1570–79
2°	63	31	12	22	8,5	3	2,5	14	15	6,5	17
4°	36	59	71	67	83,5	61	43	41	29,5	37,5	53
8°	2	8	16	11	6	**36**	**55,5**	**42**	**55,5**	**54,5**	30
≤ 12°	1	1	1	0	2	0	0	2	0	1,5	0
〉100쪽	38	38	31	12	22	17	**31**	**44**	41	43	41

종교개혁 이후 서적인쇄의 상승은 라틴어 인쇄물과 민중어 인쇄물을 구분해서 나타낼 경우 특히 분명히 인식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인쇄물의 질적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2[22] 참조)

21) Ebda., S. 159.
22) Ebda., S. 523의 표를 참조하여 새로 작성하였음.

표 2: 신성로마제국 독일의 서적 생산, 1511-1524 (종)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라틴어	592	631	665	709	725	759	761	**722**	674	631	542	486	422	413
독일어	84	87	86	91	80	83	100	**154**	208	274	352	435	460	474
자국어	146	155	125	150	141	150	155	**221**	272	345	458	642	755	783
전체	738	786	790	859	866	909	916	**943**	946	976	1000	1128	1177	1196

1524년까지 독일어 인쇄물 종의 수는 1511년과 비교해서 거의 6배 이상 증가하였다.[23]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인쇄물 종류의 증가는 1,5배에 그쳤다. 평균 발행부수로 계산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10배에 다다를 정도로 증가하였다.[24] 1517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이 전체 서적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위의 도표는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서적 생산의 양적 증가는 서적의 질적 손상을 가져왔다. 대부분 얇은 두께의 책이나 혹은 소책자가 거래되었다. 이런 서적은 비교적 싼 가격으로 구입될 수 있었다. 2절판이나 100쪽 이상의 인쇄물은 이 시기에 드물었다. 1519년까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8절판 서적들은 1520년 3분의 1까지 증가하였고, 1530년대에는 절반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표 1 참조).

1516년 독일에선 독일어로 제작된 텍스트가 83종에 그친 반면에, 6년 뒤인 1522년에는 1장짜리 인쇄물을 제외시켜도 매년 435종에 이르렀다(표 2). 동시대인들은 이런 과정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버린 폰 귄츠부르크는 1521년에 자신의 저서에 “독일의 책들이 너무 많아졌으며, 독일어로 사람들은 이제 신적이며 인간적인 현명함, 모든 계급의 선과 악을 발견한다”[25]고 언급하고

23) 1520년까지 독일에서는 1천 6백9십만 부의 서적이 인쇄되었고, 그 중 5,6%에 해당하는 9십4만6천부가 독일어 서적이었다. Vgl. Engelsing, Rolf: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Zur Sozialgeschichte des Lesens in Deutschland zwischen feudaler und industrieller Gesellschaft.* Stuttgart 1973, S. 18f.

24) Ebda.

있다. 라틴어 서적의 종류는 1517년 761종에서 1524년에는 413종으로 떨어졌다. 겨우 7년 만에 절반이 줄어들었다. 특히 라틴어 신학 서적이 여기에 해당되었다. 에라스무스는 1523년에 로마의 고위 성직자에게 루터의 독일어 작품이 라틴어 신간 서적의 인쇄를 저지하고 있다고 푸념하였다.[26]

15세기 말에 이미 포화상태로서 시장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수많은 라틴어 서적들이 1520년대에 이르자 서적상의 판매목록에서도 사라졌다. 물론 1520년대에는 전 유럽이 루터로 야기된 신학적 논쟁 서한만 읽으려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전래 자국어 '민중서 Volksbuch' 판매도 라틴어 서적과 마찬가지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1535년 이후 전래된 독일의 교화적 민중서들의 판매가 적어도 종교개혁 이전과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반면, 라틴어 신학 인쇄물은 계속 대중들로부터 외면 받았다. 그 때문에 인쇄업자들은 민중어 버전으로 유통되고 있었던 새로운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신들의 작업 프로그램에 넣었다. 종교개혁이 수 백 년 간 정전 Kanon으로 인기를 누렸던 서적들의 판매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는 보이티우스의 작품 『철학의 위안 De consolatione philosophiae』[27]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표 3[28] 참조)

표 3: 보이티우스, 『철학의 위안』의 출판

	– 1489	1490–1499	1500–1509	**1510–1519**	**1520–1529**	1530–1539	1540–1549	1550–1559	1560–1569	1570–1579	1580–1589
독일 (가톨릭)	20	20	12	**12**	**2**	2	1		1		3
이탈리아	9	2	2	**3**	**4**	2		3	2	1	2
프랑스	17	17	14	**6**	**4**					1	1
그외 유럽	2	3		**2**	**1**		1	1			
전체	48	42	28	**23**	**11**	4	2	4	3	2	6

25) Eberlin von Günzburg, Johann: *Sämtliche Schriften II*, hrsg. v. L. Enders, Halle 1896, S.69.

26) Neddermeyer, a.a.O., S. 524.

27) 고대후기 철학자 보이티우스의 대표작이다. 동고트 왕국 테오도리쿠스 대왕을 섬긴 학자 보이티우스가 반역죄에 몰려 사형을 받기 전에 옥중에서 썼으며, 전5권으로 되어 있는 산문체의 논문인데, 그 사이에 39편의 아름다운 시가 섞여 있다.

28) Neddermeyer, 525.

라틴어 신학 서적을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독일 신학자들의 비난에 대해 루터는 자기변론을 해야만 했다. 그는 1525년 9월에 이런 맥락에서 뉘른베르크 시의회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 나는 다른 인쇄업자들의 경우처럼 코베르거 인쇄소에도 많은 책들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우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Ich weiß auch wohl, daß den Koburgern viel Bücher verliegen [unverkäuflich liegen], wie andern Druckern mehr. Aber was können wir dazu?[29]

1530년 이후 독일에서 라틴어와 자국어 인쇄물의 비율이 비슷해졌다.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선 자국어 텍스트의 백분율이 1520년대 70%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계속 떨어지며, 1530에서 1600년 사이에는 60%에서 40%로 서서히 떨어진다. 같은 시기 가톨릭 지역에도 백분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하락세는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비슷하게 나타난다. 여기선 자국어 비율이 40%에서 30%로 떨어진다. 1600년대 말에 자국어 작품의 출판 비율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프로테스탄트 네덜란드 지역 등에서도 30%에서 50%였다.(그림 2[3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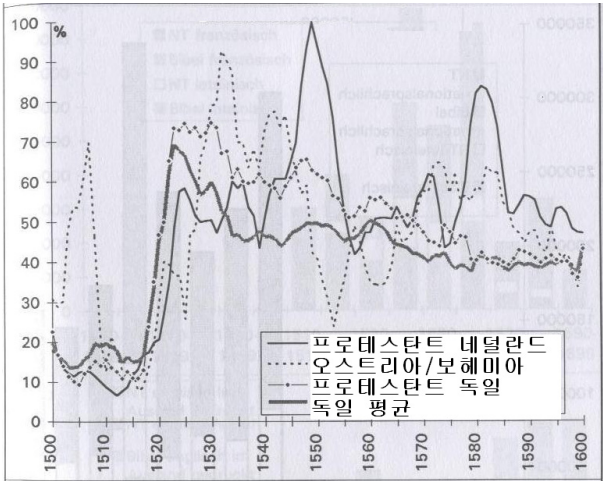

그림 2: 독일의 자국어 인쇄 (%)

29) Luther, WA Briefwechsel III, 578.
30) Neddermeyer, a.a.O., S. 705.

IV.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가톨릭 지역의 서적인쇄

종파적 차이는 독일의 출판 시장에서 처음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프로테스탄트, 혹은 가톨릭을 가리지 않고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종교개혁에 관련된 책들이 출판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1520년부터 5년 동안 독일의 전체 서적 생산이 가파르게 상승한 후에 1547년까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고, '아우크스부르크 과도기 Augsburger Interim'(1548)와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평화Augsburger Religionsfrieden'(1555) 이래 짧은 침체기를 거쳐 1562년까지 한 번 더 강력하게 증가한다. 북부독일과 중부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지역(1547년[31])의 경계선)은 1530년 이후, 가톨릭 지역에선 이미 1524년 이후에 서적 생산의 현저한 감소가 인식될 수 있다. 이런 감소 현상은 1550년에 가서야 비로소 끝난다. 가톨릭 인쇄 지역도 1520년대에는 루터로 인해 야기되었던 최초의 서적인쇄 부흥기에 동참한다. 그러나 여기선 로마교회가 루터 관련 인쇄물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파문위협과 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쇄의 양이 1550년까지 대략 종교개혁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다. (그림 3[32]) 참조).

스위스지역의 서적 출판은 1520년 루터의 저서와 종교개혁가들의 작품을 통해 일어난 서적 출판 붐이 프로테스탄트 작품의 생산과 관련된 발전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보기를 제공한다. 제네바와 취리히로 대표되는 스위스에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소량의 서적만 인쇄되던 지역이었다. 1530년까지도 매년 50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1550년에 스위스에서 인쇄된 출판물은 엄청난 양을 기록했으며 독일의 출판물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고,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지역의 출판을 훨씬 능가하였다. 그러나 1560년 이후 스위스의 인쇄소들은 이웃하고 있는 프랑스와 남부독일의 '재가톨릭화 Rekatholisierung'라는 정치적 이유로 급격한 타격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이런 손실은 17세기에 이르기까지 회복

---

31) 1547년은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동맹인 슈말칼덴 동맹이 황제에게 패망하여 와해된 해이다. 그러므로 이 해는 출판역사에서 두 종파 지역을 나누는 주요 시점으로 이용된다. 1547년 이후 많은 지역들이 다시 가톨릭 지역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32) Neddermeyer, a.a.O., S. 701.

되지 못했다.

이 시기에 '필사본 시대'에 책에 대한 콘셉트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인상이 비로소 나타난다. 즉, 여태까지 책들은 항상 부족한 상품이며 일종의 예술품에 속했다. 그러나 1517년 이래 시장에 쏟아진 엄청난 양의 책들은 포스트 종교개혁의 기대감으로 많은 책이 인쇄되었고, 아마 지나치게 많은 양의 읽을 것을 요구했던 독자들에 의해 구입되었다. 이제 책은 작가의 사상을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매체의 기능을 띠게 된다.

종파적 구분, '반종교개혁' 내지는 '가톨릭 개혁', '프랑스 종교전쟁 Hugenottenkriege'(1562-1598) 등을 통해 1562년 이후의 10년간은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까지도 서적출판의 위기 국면이었다. 이 국면에선 서적의 종류뿐만 아니라, 평균 발행부수도 감소한다. 1575년 이후 종교개혁의 문화 정치적 영향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었다. 종파적 내지는 지역적으로 구분되는 1517년 이후의 발전은 출판의 거점을 북부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50년이 족히 지난 후 서적의 수용, 독서 관심, 독자층의 넓이 등이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확연하게 구분되기에 이르렀다.

'30년 전쟁' (1618-1648년)이 일어나기 전까지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이라는 두 종파는 서적 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종국에는 서적 출판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지역 인쇄소는 1575년 저점을 찍은데 비해, 20년도 지나지 않아 거의 두 배의 성장을 한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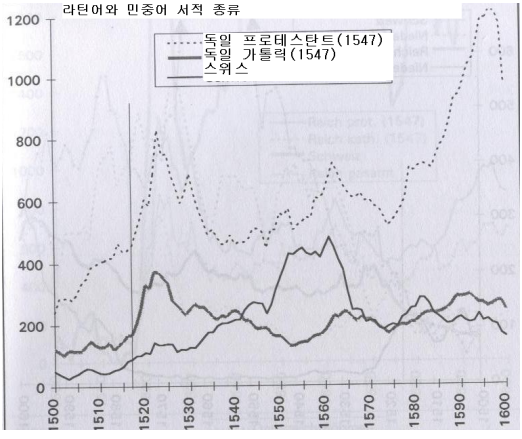

그림 3: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가톨릭 지역의 서적인쇄

네덜란드에서는 출판의 중심지가 안트베르펜, 뢰벤, 브뤼셀에서 암스테르담과 우트레히트로 옮겨

간다. 이 도시들은 16세기 말에 새롭게 등장한 산업 현장으로서 유럽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새롭게 획득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의 서적 생산은 1575년 이후 분명 증가는 하고 있을 지라도, 오스트리아 외의 지역에서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등지로부터 독일의 가톨릭 지역으로의 책 수입이 증가되었다. 개별 작품의 인쇄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이것이 종종 외국에서, 그리고 후에 수요가 증가하면 독일의 가톨릭 도시에서도 인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입된 서적들은 독일에서 인식될 수 있는 서적인쇄의 부족분을 상쇄시켜 주진 못했다. 교회의 검열제도 도입[33]과 인쇄업자의 추방 등을 통해 원치 않는 신학 저서들의 인쇄가 저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내용적으로 의심스럽지 않은 서적들의 생산도 중지하거나 자신들의 인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했다. 예컨대 라틴어 고전주의자들의 작품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에 프로테스탄트 도시에서 자주 인쇄되었지만, 가톨릭의 네덜란드와 쾰른, 남부 독일지역에선 드물게 인쇄되었다. 가톨릭의 인쇄는 93명의 인쇄업자가 일했던 쾰른과 40명의 인쇄업자가 일했던 빈에 집중되었다. 1555년과 1648년 사이에 328명의 알려진 인쇄업자 중 대략 3분의 1이 이 두 도시에 있었으며, 거의 절반에 이르는 책을 인쇄하였다.[34]

그림3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적 출판의 그래프는 프로테스탄트 지역과 비교해서 가톨릭 세계에서는 책이 미미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친다는 인상을 재차 심어준다. 이런 인상은 특정 서적의 인쇄를 보기로 들어도 쉽게 증명된다. 예컨대,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결정에 따라 1566년 로마에서 편찬된 기본적인

---

33) 예컨대, 1486년 신성로마제국의 선제후인 마인츠 대주교 헤네베르크Berthold von Henneberg는 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모든 작품들은 인쇄하기 전에, 그리고 인쇄된 번역물은 판매 전에 거기에 속한 마인츠나 에르푸르트의 신학교수에 의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검열 칙령을 공포했다. Vgl. Kapp, Friedrich: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and 1: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is in das siebzehnte Jahrhundert, Leipzig 1886,S.529.

34) Vgl. Enderle, Winfrid: Die Druckerverleger des katholischen Deutschlands. Zwischen Augsburger Religionsfrieden 1555 und Westfälischem Frieden 1648, in: G. Kaiser(Hg.), *Bücher für die Wissenschaft. Bibliotheken zwischen Tradition und Fortschritt*. FS G. Gattersmann, München 1994, S.37-59; hier S.45-47.

『교리문답서 Katechismus』의 몇몇 판만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특히 루터의 『작은 교리문답서』가 1529년과 1600년 사이에 훨씬 작은 수용 공간에도 불구하고 22개 지역에서 최소한 224번에 걸쳐 인쇄되었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가톨릭의 『교리문답서』는 놀라울 정도로 소량에 그치고 있다.[35)]

표 4: 트리엔트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제작된 로마의 『교리문답서』 (판)

인쇄지역	1567-1569	1570-1579	1580-1589	1590-1599	1600-1609	1610-1619	1620-1629
독일	2	4	2	0	0	1	2
뢰벤/안트베르펜	2	3	2	2	2	2	0
이탈리아	5	14	13	3	13	11	3
프랑스	4	3	0	0	1	1	0
스페인	0	0	0	0	0	1	2
전체	13	24	17	5	16	16	7

또한 가톨릭 지역의 원활하지 못한 서적 수급에 불만을 표시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가톨릭의 열정적인 옹호자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하네스 코흐로이스Cochläus(1479-1552)는 1549년에 인쇄된 자신의 루터 코멘트에서 두 종파의 서적들이 인쇄업자들에 의해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한탄하였다. 인쇄업자들이 프로테스탄트 서적들을 위해선 많은 부수로 유포하기 위해 어떤 배달이나 노력도 아끼지 않는 반면에, 가톨릭 저서들은 마지못해, 오류투성이로 미미할 정도로 적은 부수로만 제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코흐로이스는 이를 근거로 수도원 인쇄소, 쾰른과 뢰벤의 인쇄소만을 신뢰했다.[36)]

35) Vgl. Bellinger, Gerhard J.: *Bibliographie des Catechismus Romanus. Ex decreto Concilii Tridentini ad Parochos 1566-1978*, Baden-Baden 1983, S.73-77.

36) Vgl. Clemen, Otto: *Die lutherische Reformation und Buchdruck*, Leipzig 1939, S. 34.

V. 독서 형태와 독서 인구의 변화

16세기 말까지 독일의 인구는 2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독서의 사회사를 연구한 엥엘징은 자신의 저서 『문맹과 독서』에서 이 시기에 대략 4십만에서 8십만 사이의 독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다.[37] R. 비트만은 이 수치를 너무 높이 잡았다고 주장한다.[38] 그러나 비트만이 사용했던 15세기에 동원된 라틴어 문법서라는 계산 근거는 독자층의 확산에 더 이상의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없다. 그것은 첫째, 자국어 독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고, 둘째, 라틴어의 기본을 습득할 수 있었던 새로운 고대 작품과 동시대 작품이 그 당시 많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굳이 라틴어 문법서만을 이용해 라틴어를 배울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15세기에서 16세기로 전래된 텍스트의 비율을 산정하기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1524년과 25년은 독일에서 자국어 서적의 비율이 65%로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표 5[39] 참조)

표 5: 16세기 신성로마제국 독일의 자국어 인쇄물 비율 (1500-1599 / 1516-1525)

	1500-1509	1510-1519	1520-1529	1530-1539	1540-1549	1550-1559	1560-1569	1570-1579	1580-1589	1590-1599
자국어비율	17	19	51	58	50	49	47	41	41	40
	1516	1517	1518	1519	1520	1521	1522	1523	1524	1525
자국어비율	16	17	23	29	35	46	57	64	65	65

이 비율은 아마 18세기 말이나 19세기에 가서야 추월될 수 있는 수치일 것이다. 약간의 감소를 겪은 후 1560년 850종의 독일어 서적이 출판됨으로써 또 한 번

37) Engelsing, Rolf: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Zur Sozialgeschichte des Lesens in Deutschland zwischen feudaler und industrieller Gesellschaft.* Stuttgart 1973, S. 29 u. 32ff.

38) Wittmann, Reinhard: *Geschichte der deutschen Buchhandels,* 3. Aufl. München 2011, S. 68f.

39) Neddermeyer, a.a.O., S. 523.

‘절대적 우위’의 인쇄물로 등극한다. 1520년 이래 갑작스럽게 대량으로 보급될 수 있었으며, 대부분 신학적 내용을 지녔던 자국어 작품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수용되었던가? 이 작품들이 종교개혁 직후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읽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었던가? 동시대 자료들은 여기에 대해 어떤 명쾌한 답변도 해주지 않는다. 융커인 프란츠 폰 지킹엔 Sickingen(1481-1523)은 「카르스탄 대화집」[40]에서 1521년 성경에 대한 루터의 교리를 어떻게 전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많은 평신도들이 루터의 교리를 귀로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종교개혁가인 J. E. v. 귄츠부르크 Günzburg(1470-1533)도 같은 해에 모든 경건한 기독교인은 자율적으로 ‘개신교적 진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동시에 ‘자신의 집에서 홀로 하는 독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루터도 개인 독서에 대해 1528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이제 평신도도 서간과 복음, 두 가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집에서 혼자 읽고, 예전에 우리가 설교에서 알 수 있었던 것보다 심지어 아주, 아주 많은 것을 순전히 거기서 이해하고 있다.
> itzt aber auch die Laien können beide, Episteln und Evangelia, reichlich verstehen, auch daheimen selbs lesen und gar viel, viel mehr und alles reiner daraus nemen, denn wir zuvor aus allen Predigten nemen kundten.[41]

또한 그는 독일어 책이 평민의 독서를 위해 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독일어 서적은 특히 집에서 독서하는 평민을 위해 제작되었다.
> Deudsche bucher sind furnemlich dem gemeinen man gemacht, jm hause zu lesen.[42]

---

40) 1520년 말에서 1521년 1월에 최초로 인쇄된 「카르스탄 대화집」은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많이 읽혀지는 전단지였다. 이것은 과거와는 달리 독일어로 작성되어 라틴어를 말하는 인문주의자와 독일어를 말하는 민중을 연결시켜주는 매체 역할도 담당했다.

41) Luther, WA XXI, S.201.

42) Zitiert nach Flachmann, Holger: *Martin Luther und das Buch,* Tübingen 1996, S.171.

이미 중세의 중기와 후기에 소위 '문자 수용자의 중개 네트워크 Vermittlernetz von Rezipienten'[43], 예컨대 '낭독하고 vorlesen', '읽은 것을 듣고 lesen hören',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 weitergeben'은 종교개혁 직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16세기에도 몇몇 민중어 텍스트들은 그런 차원에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후 평민들은 민중어 텍스트를 아주 흔하게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민중어 성경이 많이 인쇄되었고, 특히 루터가 번역한 『루터성경』은 독일의 대부분 지역에 '민중서 Volksbuch'가 되었다. 많은 양의 성경 제작은 증가하는 독자층에 대한 근거를 최소한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슈타크만이 다음과 같이 확언한다.

> 1522년 『9월 성경』을 통한 루터의 성경 번역이 출간되기 시작했을 때, 성경으로 독서에 길들여진 평신도 대중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 Als Luthers Bibelübersetzung mit dem September-Testament von 1522 zu erscheinen begann, gab es längst ein Laienpublikum, das an das Lesen in der Bibel gewohnt war.[44]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도 주로 성경의 일부분들이, 특히 시편 등이 평신도의 손에 쥐어졌다. 또한 인쇄된 자국어성경도 아마 대부분 수도원에 비치되어 있거나 성직자가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에는 자국어성경의 수가 여전히 미미한 수준[45]에 그쳐서 독서 인구의 증가에 주도적 역할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두꺼운 성경 인쇄물의 높은 가격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문자 해독자'가 성경을 손쉽게 구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비교적 헐값으로 판매될 수 있었고, 장정에 따라 시편과 한 권으로 묶어 완판 성경 가격의 3분의

---

43) Knoop, Ulrich: Entwicklung von Literalität und Alphabetisierung in Deutschland. In: H. Steger/H.E. Wiegand(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Berlin/New York 1994, S.859-872, hier: S.862.

44) Stackmann, Karl: Probleme germanistischer Lutherforschung, in: *ARG* 75(1984), S. 7-31; hier: S. 20. 또한 최경은, 「루터 이전에 인쇄된 독일어성경의 문화사적 의의」,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38, 2012, 201-230쪽을 참조하시오.

45) 루터 이전에 인쇄된 18종의 독일어성경(1466-1522)은 모두 1만부 정도 인쇄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급될 수 있었다. 1520년대에 2, 3굴덴으로 사람들은 이미 '기본 서적'은 가질 수 있었다. '기본 서적'은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 루터의 주석이 포함된 시편, 그리고 몇몇 작은 분량의 논쟁 서한과 목사용 텍스트를 의미했다. 물론 이 정도의 책값도 여전히 많은 금액이었으나, 일반 대중에게는 더 이상 불가능한 액수는 아니었다. 『9월 성경』의 가격은 2분의 1플로린[46]에서 1.5플로린 사이였다. 반면에 1534년 2절판 900쪽 분량의 성경은 2.5플로린이었다. 1541년과 1545년의 772쪽 분량의 성경이 제본되지 않은 상태에서 3플로린이었다. 오래된 성경 인쇄물의 가치도 이 시기엔 비슷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인쇄한 2절판 406쪽 분량의 『비블리아 도이취』가 처음엔 7플로린에 거래되다가, 16세기 초에 15바첸(대략 1플로린)에 판매되었다. 크고 비용을 많이 들여 인쇄하였고, 니콜라우스 드 리라 Nikolaus de Lyra(1275-1349)의 설교집을 포함시킨 4권짜리 뉘른베르크판 성경은 (1487년, 2절판, 1570쪽) 처음 인쇄되었을 때 6플로린이었으며, 1539년에는 비록 4개의 가죽 표지로 최소한 2플로린이 추가로 들었지만 제본 상태에서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간단한 라틴어성경은 이미 1플로린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47]

『9월 성경』 초판이 인쇄되고 20년이 지난 뒤에 이미 25만부의 독일어성경, 3만부의 네덜란드어성경, 약 4만부의 프랑스어성경이 인쇄되었다. 프랑스에선 같은 시기에 '겨우' 4만부 정도의 프랑스어성경만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프랑스로 많은 양의 성경이 수출되었다. 이런 양에 대해선 만약 인쇄산업이 이미 1540-60년에 특히 가톨릭 인쇄 지역에서 가벼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독일어로 인쇄된 50만부의 성경이, 물론 많은 부분이 단지 신약성경만을 의미하고 있었지만, 독일 독자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그림 4[48] 참조)

1569년까지 독일에서는 80만부의 성경이 시장에 나왔다. 공급의 확대로 1570년대 성경 인쇄가 급격히 감소했고 16세기 말까지 이어졌으며, 이런 감소 추세는 '가톨릭 개혁'이 독일의 가톨릭 지역에서 성경에 대한 관심[49]을 많이 보였

46) 'Florin'은 중세에 통용된 금화의 명칭이다.
47) Vgl. Neddermeyer, a.a.O., S. 523, S. 831-862.
48) Ebd., S.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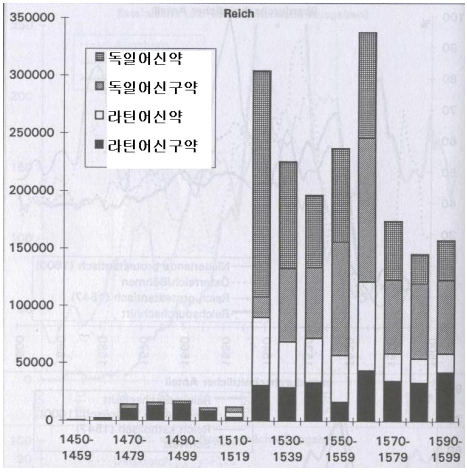

그림 4 : 독일의 성경 인쇄

을 지라도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종교개혁 후에 인쇄된 라틴어 성경과 자국어성경의 전체 부수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통계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성경의 대량생산은 최소한 어느 정도 문자를 해독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한 권 구입할 경우에만 가능했다. 자국어성경과 신약성경만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문자를 해독할 줄 아는 사람들의 수는 네덜란드와 독일어권 스위스를 포함한 신성로마제국 독일에서만 이미 16세기 전반기에 50만-75만 정도였으며, 16세기 말에는 100만을 넘고 있다. 그래서 클라인슈미트는『도시와 문학』이라는 연구서에서 16세기 후반기와 17세기에는 성인 도시민의 4분의 1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연구결과라 하겠다.[50)]

15세기와 비교해보면 16세기에는 도시와 자국어 독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15세기까지 독서와 쓰기 능력의 주 세력이었던 수도원은 상대적으로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필사 시대의 종말 직전에 이미 도달했던 수도원의 완벽한 문자 해독력으로 인해 수도원은 더 이상 성장할 여력도 없었다. 16세기 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성경 인쇄가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구매자의 수가 증가했던 국면이 이미 1560년 이전에 종말을 고했고, 이런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여 30년 전쟁까지 폭 넓은 문

49)『루터성경』에 대항하여 가톨릭에서는 반종교개혁 독일어성경으로 히에로니무스 엠저(1527), 요한 디텐베르크(1534), 요하네스 에크(1537) 등이 각각 독일어성경을 출간하였다.

50) Kleinschmidt, Erich: *Stadt und Literatur in der frühen Neuzeit. Voraussetzungen und Entfaltung im südwestdeutschen, elsässischen und schweizerischen Städteraum*, Köln/Wien 1982, S. 177.

자 사용자가 아주 서서히 증가하고 있을 뿐임을 추정하게 한다.

물론 이미 유포되어 있는 수십 만 권의 성경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전달되고 있음도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 후 17세기 내내 전쟁으로 인한 주민 감소에 따라 서적 생산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 감소하였기 때문에 독자의 증가는 거의 기대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일련의 작품 예컨대 성경, 고전주의 작품, 독일어 서사 텍스트, 역사서 등의 출판이 일시적으로 침체되거나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18세기로 접어드는 전환기 직전에 비로소 다시 부흥기가 도래하게 되며, 이런 부흥기는 아마 서적 생산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문자사용 증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의 수가 1350년에서 1450년 사이의 필사문화 전성기, 즉 '제1차 고도성장 국면'을 지난 뒤 1520년과 1560년 사이에 또 한 번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독일에서 종교개혁은 순수 양적인 관점에서 독서 능력이 서적인쇄의 결과 앞선 문자화로 이익을 받았던 것보다 독서 능력 향상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물론 16세기 독자층의 배가는 그때까지 지배적인 교회 그룹이 16세기 말에 자신들의 지식을 점점 더 많아지는 평신도에서 나누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VI. 결론

인쇄술과 종교개혁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세계사적 사건들이다. 두 사건은 공교롭게도 모두 신성로마제국 독일에서 독일인에 의해 발명되고, 또한 점화되었다. 그러나 이런 지역적 연관성보다는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련성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인쇄술은 개인 사상의 전파를 통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으며, 종교개혁은 갓 피어나기 시작한 신기술인 인쇄술이 서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었다. 다시 말해, 종교개혁사에서 "서적인쇄 없이 종교개혁 없었다"라는 표현이 유효하듯이, 출판역사에서도 "종교개혁 없이 서적인쇄의 발전도 없었다"라는 주장 역시 전혀 틀린 말이 아닐 만큼 종교개혁은 인쇄술 발전에 필수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서적인쇄에 미친 영향을 요약해보자.

- 인쇄 대상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종교개혁 관련 인쇄물이 교화적인 내용을 담은 종전의 인쇄물을 대체했으며, 수백 년 간 인기를 누렸던 정전들이 인쇄 대상에서 서서히 사라지거나 적은 양만이 출판되었다. 그리고 민중어 버전으로 전래되고 있었던 작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인쇄되었다.
- 인쇄물의 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체 서적 생산의 측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가져왔다.
- 인쇄물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인쇄 서적의 가격이 하락했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부족했던 주민들도 이제 '기본 서적'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 라틴어 인쇄물은 감소하고 자국어 인쇄물은 증가하였다.
- 서적의 기능이 완전히 변화하였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서적이 여전히 예술품으로서 간주되곤 했으나, 이제 완전히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 종파적 차이로 인해 출판의 중심이 프로테스탄트 지역인 북부 독일로 옮겨졌다.
- 가톨릭 지역에서는 교회의 검열제도 도입과 인쇄업자의 추방 등으로 인쇄업이 위축되었다.
- 서적의 충분한 공급은 독서 형태도 변하게 했다. 즉 낭독에서 '자신의 집에서 홀로 하는 독서'인 묵독의 형태로 차츰 변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종교개혁이 서적인쇄에 미친 영향을 정리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이 과연 평신도의 읽기 능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분화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종교개혁이 인쇄물의 순수 양적인 관점에서 판단해보면 읽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후 거의 두 배로 늘어난 독자층의 증가가 문자 이해력의 향상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종교개혁이 인쇄술의 결과물에 이미 익숙해 있었던 문자화에 의해 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종교개혁 직후의 인쇄물 증가와 평신도의 문자 이해력에 대한 상호관련성 연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참고문헌

빅토르 위고, 『파리의 노트르담 1』, 정기수 옮김, 민음사 2005.

엘리자베스 L. 아이젠슈타인, 『근대 유럽의 인쇄 미디어 혁명』, 전영표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올리비에 크리스텡, 『종교개혁. 루터와 칼뱅. 프로테스탄트의 탄생』, 채계병 옮김, 시공사 1998.

최경은, 「구텐베르크 서적인쇄술 발명의 사회문화적 배경」, 실린 곳: 『독어교육』 51집, 499-518쪽.

최경은, 「루터 이전에 인쇄된 독일어성경의 문화사적 의의」, 실린 곳: 『뷔히너와 현대문학』 38, 2012, 201-230쪽.

Bellinger, Gerhard J.: *Bibliographie des Catechismus Romanus. Ex decreto Concilii Tridentini ad Parochos 1566-1978*, Baden-Baden 1983.

Boockmann, Hartmut: Zu den Wirkungen der “Reform Kaiser Siegmunds”, in: *Studien zum städtischen Bildungswesen des späten Mittelalters und der frühen Neuzeit*, hrsg. v. B. Moeller u.a., Göttingen 1983, S. 112-135.

Clemen, Otto: *Die lutherische Reformation und Buchdruck*, Leipzig 1939.

Eberlin von Günzburg, Johann: *Sämtliche Schriften II*, hrsg. v. L. Enders, Halle 1896.

Enderle, Winfrid: Die Druckerverleger des katholischen Deutschlands. Zwischen Augsburger Religionsfrieden 1555 und Westfälischem Frieden 1648, in: G. Kaiser(Hg.), *Bücher für die Wissenschaft. Bibliotheken zwischen Tradition und Fortschritt*. FS G. Gattersmann, München 1994, S. 37-59.

Engelsing, Rolf: *Analphabetentum und Lektüre. Zur Sozialgeschichte des Lesens in Deutschland zwischen feudaler und industrieller Gesellschaft*. Stuttgart 1973.

Flachmann, Holger: *Martin Luther und das Buch*, Tübingen 1996.

Giesecke, Michael: *Der Buchdruck in der frühen Neuzeit*, Frankfurt am Main 1991.

Holborn, Louise W.: Printing and the Growth of a Protestant Movement in Germany from 1517 to 1524, in: *Church History* 11 (1942), S. 123-137.

Kapp, Friedrich: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and 1: Geschichte des Deutschen Buchhandels bis in das siebzehnte Jahrhundert*, Verlag des Börsenvereins der Deutschen Buchhändler, Leipzig 1886. (Reprint)

Kleinschmidt, Erich: *Stadt und Literatur in der frühen Neuzeit. Voraussetzungen und Entfaltung im südwestdeutschen, elsässischen und schweizerischen Städteraum*, Köln/Wien 1982.

Knoop, Ulrich: Entwicklung von Literalität und Alphabetisierung in Deutschland. In: H. Steger/H.E. Wiegand(Hg.), *Schrift und Schriftlichkeit.* Berlin/New York 1994, S. 859-872.

Martin Luthers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Weimarer Lutherausgabe), 120 Bände, 1883-2009 (Sonderedition 2000-2007). (WA로 표기)

Moeller, Bernd: Stadt und Buch. Bemerkungen zur Struktur der reformatorischen Bewegung in Deutschland, in: *Stadtbürgertum und Adel in der Reformation*, hrsg. v. W. Mommsen, Stuttgart 1979, S. 25-40

Neddermeyer, Uwe: *Vor der Handschrift zum gedruckten Buch,* Wiesbaden 1998.

Schilling, Heins: *Aufbruch und Krise.* Deutschland 1517-1646, Berlin 1988.

Schulze, Winfried: *Deutsche Geschichte im 16. Jahrhundert*, Frankfurt am Main 1987.

Widmann, Enoch: Chronik, hrsg. v. Ch. Meyer, in: *Hohenzollerische Forschungen* 2 (1893), S. 1-128.

Wittmann, Reinhard: Geschichte der deutschen Buchhandels, 3. Aufl. München 2011.

Zusammenfassung

Die Auswirkungen der Reformation auf den Buchdruck

Choi, Kyung-Eun(Yonsei Univ.)

Martin Luther war sich der Bedeutung des Buchdrucks für den Erfolg der Reformation durchaus bewußt und bezeichnete die Gutenbergsche Erfindung als “letztes Gottesgeschenk”. Aber seine Stellung zum gedruckten Buch war vom hergebrachten Gedanken des gebildeten christlichen Europäers zwischen Ablehnung und Angst vor den Büchermassen auf der einen, der problemlosen Versorgung mit dem wichtigen Buch, also der Heiligen Schrift, auf der anderen Seite gekennzeichnet. Später wiederholte Luther häufig seine Meinung, dass der Druck mit beweglichen Lettern eine oder gar die wesentliche Voraussetzung für den Durchbruch der Reformation darstelle.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n Auswirkungen der Reformation auf den Buchdruck. Der sprunghafte Anstieg der Buchproduktion nach 1517 ist besonders erkennbar, wenn zwischen lateinischen und nationalsprachlichen Drucken differenziert wird. Bis 1525 wuchs die Zahl der deutschen Druckausgaben im Vergleich zu den ersten fünfzehn Jahren des 16. Jahrhunderts auf mehr als das Sechsfache an, während zugleich die durchschnittliche Auflagenhöhe ebenfalls zunahm, so dass sich insgesamt fast eine Verzehnfachung der Stückzahlen errechnen lässt.

Die konfessionellen Unterschiede wurden anfänglich dadurch verdeckt, dass fast überall Luthers Schriften aufgelegt wurden. In den nord- und mitteldeutschen protestantischen Reichsgebieten ist nach 1530, in den katholischen schon nach 1524 ein deutlicher Rückgang der Buchproduktion zu erkennen, der erst um die Jahrhundertmitte endete. Die katholischen Druckorte machten den ersten Boom, der durch Luther ausgelöst wurde, noch mit. Aber nach den Bannbullen und Verboten ging dort die Quantität bis zur Jahrhundertmitte etwa auf das vorreformatorische Niveau zurück. Während die konfessionell unterschiedliche Entwicklung nach 1517 eine Verlagerung der Produktionsschwerpunkte in den Norden zur Folge hatte, unterschieden sich 50 Jahre später auch die Buchproduktion, das Leseinteresse und die Breite der Leserschaft bei Katholiken und Protestanten fundamental.

Nach der Reformation stieg der Anteil des städtischen und volkssprachlichen

Publikums gewaltig an, während die vor der Reformation entscheidende Basis der Lese- und Schreibfähigen, die große Zahl der Kleriker, nicht mehr weiter wachsen konnte. Obwohl die Leserzahlen zwischen 1520 und 1560 stark zunahmen, wirkte sich die Reformation in Mitteleuropa im Gesamturteil aus rein quantitativer Sicht noch weniger positiv auf die Lesefähigkeit aus, als dass sie von der vorangehenden Literalisierung im Gefolge des Buchdrucks profitierte. Die nochmalige Verdoppelung der Leserschicht im 16. Jahrhundert war nur deshalb möglich, da die bislang vorherrschenden kirchlichen Kreise am Ende des Jahrhunderts ihre Kenntnisse mit einer immer größeren Zahl von Laien teilten.

핵심어 : 인쇄술 Buchdruck, 종교개혁 Reformation, 루터 Luther, 성경 Bibel, 종파적 차이 konfessionelle Unterschiede

필자 E-mail : choikec@yonsei.ac.kr

논문투고일 : 2012. 7. 14 / 심사일 : 2012. 7. 29 / 심사완료일 : 2012. 9. 10